

성탄절 눈 내린 광주... 한파에 오들오들, 출근길 엉금엉금

“빙판길에 ‘설실’ 기어가다 배터리까지 방전됐어요”

지역에 세밀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밤사이 강추위와 함께 내린 눈이 녹고 얼어붙길 반복하면서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빙판길이 만들어졌다.

평소였다면 시속 50km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했을 출근길 운전자들은 이날 미끄러운 빙판길을 신경쓰며 느리고 신중하게 차량을 몰았다.

미처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지 못한 운전자들은 눈발이 날리면서 급히 운전하다 정체 구간에 들어서고는 힘없이 차량을 세워야 했다.

대표적 정체 구간인 상무중앙로 내 시청 주변 사거리의 출근 시간대가 거의 끝나가는 오전 9시를 앞둔 상황에서도 빙판길 정체 여파가 이어지고 있었다.

미끄러질까봐 겁을 먹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더디게 몰자, 뒤따르던 급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이동을 재촉했다.

하지만 가까스로 정체 구간에서 탈출한 차량들도 빙판길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비쿠리를 ‘설실’ 굴릴 수밖에 없었다.

세밀 한파는 빙판길뿐만 아니라 차량 문제도 함께 일으켰다. 도로 곳곳에서는 주행 중 배터리 문제로 멈춰선 차량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운전자들은 멈춰선 차량 밖에 서서 초조한 표정으로 칼바람을 맞으면서 정체 구간에 갇혀있는 보험회사 차량을 기다렸다.

매서운 추위에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을 목 끝까지 채우거나 하면 털모자까지 쓴 채 한파를 맞았다.

시민 한모(30)씨는 “최근 도시철도 2호



밤사이 눈이 쌓이는 등 세밀한 한파가 찾아온 2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교에서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이 정체해 있다. /뉴스1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일대, 빙판길에 자·정체 배터리 방전 등 겹치면서 운전자들 ‘노심초사’

선 공사 복공량이 견디면서 출근길이 그나마 나아졌는데, 오랜만에 쌓일 정도로 눈이 내리면서 다시 출근길 지옥을 겪었다”며 “전날 눈이 쌓일 것을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출근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모(34)씨도 “성탄절 차량을 몰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됐었다. 강추위에 설마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회사의 배려를 받으면서 출근

을 약간 늦출 수 있게 됐다. 겨울철 차량 관리에 신경써야겠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전남에는 전날부터 현재까지 곳곳에 눈이 내리는 한편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남 장성·무안·함평·영광·신안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동시에, 곡성·구례·화순·고흥·보성·광양·순

천 등 전남 7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

현재 적설량은 장성 상무대 6.6cm, 담양·화순 2cm, 광주·나주 1.9cm, 곡성 1.3c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권, 서해안에 1~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날부터 내린 눈이 밤 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며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26일 이후 광주 서구 쌍촌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한상가앞에 도시철도 공사 자재반입구 접근을 막는 철책이 세워져 상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상부도로 대부분을 개방했지만 일부 구간은 자재반입로 설치 등을 이유로 내년 3월까지 통제한다. /뉴스1

“소상공인 돕겠다더니 울타리?”... 상인 ‘뿔’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 상권 회복 대책 추진 상인 “예고 없는 울타리 설치로 가게 운영 더 큰 불편” 시 “시공사 안내 미흡 인지... 민원 구간 최우선 마무리”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상권 회복 운동에 나섰지만, 시작과 동시에 2호선 전역 공사를 위한 상가 주변 울타리 설치 등에 나서면서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주변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을 위해 ‘상권 회복 종합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대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1단계 구간 상부도로 대부분이 개방된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단계 공사 구간 주변 23개 행정동 상가 2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등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추진 첫 날인 22일 광주시청 전 직원들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걸쳐있는 식당들을 방문해 단체 점심 회식을 진행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려는 시도도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상가를 중심으로 광주시의 단체회식 직후 진행된 2호선 잔여 공사로 오히려 불편이 가중됐다며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 쌍촌동 금교교차로 일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 지난 2023년부터 영업 중인 한 식당은 22일 광주시의 단체회식 직후 식당 앞 인도와 도로 사이를 나누는 철책이 세워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식당 인도변은 22일 이전까지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했으나, 상부도로 개통 이후 주변에 공사 자재 반입로가

들어서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철책이 설치됐다.

식당 관계자는 광주시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철책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손님 방문 감소 우려는 물론 식당 운영 자체 납품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이면 끝난다는 소식에 잡자고 기다렸는데 해를 넘겨도 이 모양인데 이제 예고 없는 울타리까지 세워졌다. 가뜰이나 도시철도 공사로 혼잡한 상황에 방문 손님은 줄고 음식을 만들 재료도 쉽사리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강기정 광주 시장이 26일 점심 단체 회식을 와서 ‘1월 중순 울타리를 철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맞은편 상가에서도 비슷한 하소연이 이어졌다. 한 상가 관계자는 “요식업은 직원들을 동원한 단체회식으로나마 당장 발등에 붙은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권 회복 방안이 없다.

상부도로 개통으로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우리 가게는 예외였다”며 “오죽했으면 건물을 사고파는 부동산 사무실에도 임대 현수막이 붙었다. 장기화된 도시철도 공사 준공을 기다리며 희생해온 상인들에 대한 수고를 저버려선 안된다”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시공사를 통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점을 인지하고 공사 자재 반입을 서둘러 울타리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하루새 안성·나주·고창서 고병원성 AI 3건 동시 발생... “방역 총력”

경기 안성시와 전남 나주시, 전북 고창군 가금 농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AI 확진 건수는 지난 9월 첫 발생 이후 총 21건으로 늘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4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해당 농장들에서 확인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농장과 나주시 농장은 각각 산란계 11만9000여 마리와 종오리 6000여 마리 사육하는 곳이다. 고창군 농장은 육용오리 8000여 마리를 키우는 곳이다.

전날 안성 산란계 농장과 나주 종오리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보고돼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확진이 최종 확인됐다. 고창

고병원성 AI, 9월 첫 발생 이후 총 21건으로 늘어 각각 산란계·종오리·육용오리 사육... 방역 비상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 출하 전 전기 예찰 검사를 실시해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지난 9월 12일 첫 발생 이후 총 21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8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4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1) ▲충남 3건(보령 1, 천안 2)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3건(나주 2, 영암 1) ▲광주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각각 다른 지역과 축종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들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농장들이 속한 지역과 인접 지역의 발생 축종, 계열사와 관련된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특히 발생농장 10km 내 방역대 가금농

장(나주 63호, 안성 23호, 고창 36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오는 25일부터 나주 종오리와 고창 육용오리 발생 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나주 43호, 고창 30호)과 전북도 내 전체 오리농장(115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의 도축단계 검사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강화한다.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이날부터 간부급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방역지역 관리와 차단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도·관리한다. /뉴스1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